

# 몽골 출장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12. 7일)

## □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저출산 대응 사례 수집을 위해 몽골의 인구정책 추진현황 자료 수집 및 정부와 다자녀가정 심층 면접
- 출장자: 박종서 부연구위원, 노진호 중앙일보 기자
- 출장지역: 몽골 울란바트라
- 기간: 2015. 12. 2 ~ 4(2박 3일)

## [자료 수집 내용 및 심층 면접 내용]

### □ 사례 1 개요

- 일시: 2015. 12. 2 (오후 5시~6시)
- 장소: 다자녀 출산 엄마가 운영하는 상점
- 참석: 박종서 부연구위원, 노진호(중앙일보 기자), 다자녀 출산 엄마, Bazarragchaa. L (Worldwide 여행자 전문 통역자)



사진: 다자녀 가정 엄마 사례 1(엄마가 운영하는 기념품 상점)

□ 엄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1974년생으로 93년(19세)에 결혼하였음. 고등학교 졸업하 바로 결혼 한 것임. 2006년부터 경제활동(자영업, 기념품 상점을 운영)을 시작함
-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첫째아 출산 후 자녀 1세까지 일하지 못함. 첫째아는 1세 이후 조부모가 돌보았으며, 당시 조부모는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음.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사적으로 아이돌보미 고용하였음. 입주 돌보미였고, 먼 친척이었으며, 월 30만 투그릭을 지급함. 현재 추가 자녀 계획은 없음

□ 자녀 양육의 어려움

- 국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고, 국가 병원의 서비스 수준은 낮음. 따라서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비용은 비싼 편임. 그리고 병원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구 지역에 1개 있는데, 동 지역에 1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이가 너무 많다보니 정신이 없고, 시끄러움. 숙제를 돌봐주는데, 3명을 동시에 해야하고, 한 아이가 질문하면 다른 아이도 동시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음.
- 아버지는 역할을 대강대강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되고 여성이 힘든 상황.
- 이이들에게 춤, 발레 등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보내지 못하고 있음. 주변에서 대부분 못 보내는 형편이고, 일부 상층 가구에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녀 가치관 등 문화적 배경

- 결혼 당시는 남자 3명의 자녀를 원함. 출산하다 보니 딸이 1명뿐이어서, 딸 2명 정도는 갖고 싶어 계속 낳다 보니 5명이 됨. 현재 주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좀 낮게 보는 시선이 있음.
- 현재 생각으로 이상자녀수는 1~2명은 좀 외롭다고 느껴지고, 3~4명이면 좋겠다고 생각함
- 현재 자녀 5명 양육비(교육 및 양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 180만 투그릭 정도
- 상점의 월 임대료는 150만 투그릭, 전체 매출은 월 500만 투그릭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도 출산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 출산을 계속하려고 할 때, 남편의 반대가 있었지만, 엄마는 아이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낼 것이라 믿고, 자신의 믿음으로 출산을 지속함
  - 자녀가 4명되었을 때 표창2호를 받았음. 표창의 수여가 자녀를 출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딸이 1명이어서, 딸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라고 딸을 2명 낳기 위해서 계속 낳았음
  
- 자녀에게 몇 명의 자녀를 가지라고 말해줄 것인가?
  - 자녀에게 몇 명을 꼭 낳으라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를 일임.
  - 꼭 말해줘야 한다면, 3명 낳으라고 말해주고 싶음
  
- 정부 정책의 수용도
  - 정부의 지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지금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못함. 정부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아동수당, 부모수당(표창수당)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 현실을 건의하고 싶음.
  - 개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부의 지원은 큰 도움 안되고 있음
  - 몽골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몽골 상황이 अच्छ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음. 50세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듦. 즉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상태임.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없을 것임.

□ 몽골 정부 방문 1

- 일시: 2015. 12. 3 (오전 10시~12시)
- 장소: 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아동가족개발국 접견실
- 참석: 박종서 부연구위원, 노진호(중앙일보 기자), Khuushaan BAAVGAI (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아동가족개발 국장), Bazarragchaa. L (Worldwide 여행사 전문 통역자)



사진: Khuushaan BAAVGAI (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아동가족개발 국장)

□ 몽골의 인구 현황

- 몽골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예전부터 매 정권마다 인구개발 정책을 추진해왔음. 이는 국가 발전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임.
- 몽골은 국가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음
- 21년 전에 몽골의 인구는 200만명 수준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의 인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 결과적으로 올해 인구 300만명 목표를 달성하였음
- 인구 증가 정책의 성과로써, 몽골 인구의 평균 연령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자녀수는 4.5명 수준임. 전 인구의 1/3이 18세 이하 유소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 증가율은 2.2%에서 2.4%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임
- 정부가 인구 증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인구 증가추세를 예상해보면 2025년 이후부터는 인구증가율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양(+)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이후부터 음(-)의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2040년 이후 고령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72세이고, 2046년 평균수명은 7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몽골의 인구 증가세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 몽골의 인구 증가정책

- 1921년 몽골 독립이후부터 인구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독립 당시 몽골의 인구는 70만명에 불과했음. 당시 외국의 신문에 “몽골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음. 이는 몽골이 당시 사회주의 체제였고, 자본주의 시각에서 몽골의 소멸을 바라 본 것으로 생각됨
- 1940~60년대 단일 정당체제였고, 국민대회(국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때부터 다자녀 부모에게 표창제도가 시작되었음. 표창은 고위급 표창으로써 대통령 명령으로 시행하였음.
- 표창의 내용은 다녀를 둔 사람으로써, 나라의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를 부여함
- 1940년부터 표창과 함께 아이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면접 당사자인 국장의 경우 10형제의 여섯째 아들. 어머니는 유명엄마 표창 1호, 2호를 수여받은바 있음. 10명 중 7명은 남자이고, 군 복무를 하고, 현재 10형제 모두 몽골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함. 10형제의 손자까지 합하면 140여명에 이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표창 수당이 입금되면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하던 생각이 남.
- 1990년 이전에는 표창과 수당 제도만 있었음. 1990년 이후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 쌍둥이는 별도로 추가지원하는 제도가 추가되었고, 2쌍둥

이, 3쌍둥이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증액 지원되고 있음. 그래서 3쌍둥이 우대 전통이 형성되어 있음. 몽골의 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5만, 12만 투그릭을 가정마다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자녀 1명당 월 2만 투그릭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쌍둥이는 월 4만 투그릭. 임신 5개월부터 1회에 한정하여 현금 지원을 추가 지급함. 이 자녀수당은 8년 전부터 지급되었음
- 출산 후 2살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함. 임신부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몽골 헌법은 여자, 엄마의 건강과 안전이 국가의 안보 요소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임. 이런 법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인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런 제도들은 보편적인 제도로서, 취업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음
- 향후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사회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선별 제도를 논의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중임.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체 인구의 2%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빈부 격차가 큰 상태에 있음. 따라서 복지 제도에서 선별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음.
  - 현재 몽골은 가구 소득 기준을 20개 층위로 구분 중임
  - 1~6층 저소득층
  - 7~12층 차상위계층
  - 13~17층은 중산층
  - 18~20층 고소득층
  - 2015년 올해 아동수당은 1~17층까지 자녀 1명당 2만 투그릭을 0~18세까지 지급하고 있음
  - 현재 아동수당 수급 아동은 전체 아동의 60%에 해당하며, 전체 아동의 60%가 17층위까지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전체 아동의 40%는 고소득층에 해당함.

□ 정부의 종합계획 체계가 있는가?

- 국회에서 정해진 법 체계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점을 보면, 국회 회기 4년에 따라 법 체계가 변하고 있음. 따라서 정해진 종합계획은 없지만, 4년 단위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주기성은 존재하고 있음.

□ 표창제도 세부 내용

- 표창제도에서 1호는 20만 투그릭을 년 1회 지급하고, 자녀가 18세까지 지급함. 1호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가구에 지급하는 것임. 표창 2호는 10만 투그릭을 년 1회 지급하고, 자녀 18세까지 지급함. 두 개의 표창이 중복될 경우는 상위 등급만 인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따라서, 연금 등 사회보험은 지급됨(일종의 연금 크레딧이 인정되고 있음)



사진: 몽골 다자녀 가족에게 수여하는 <표창2호>

□ 보육제도

- 2~5세까지 아동은 2015년 약 26만 명인데, 보육시설 이용 대상이 되고 있음. 이 중에서 60%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내년(2016년)부터 가정양육 지원제도 시행됨. 18~65세 성인으로써 정부가 정한 여건을 충족하면 가정보육교사로 인증함. 인증받은 가정보육교사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교사 1인당 아동 5명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정부가 정한 상한 소득이하의 가구로서,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임.

○ 국립보육시설은 법적으로 사용료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비용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 규정은 없으며,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월 55만 쿠키릭 이내에서 이용료가 형성되어 있음. 민간 보육시설에게 정부는 아동 1명 당 월 11만 투그릭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 이용시간은 국립, 민간, 가정보육 서비스 모두 1일 8시간을 이용할 수 있음.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이용할 수 있음. 24시간 보육시설은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 국립,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서비스의 차이는 국립, 민간 보육시설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정 보육 서비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보육에만 집중하고 있음. 가정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1명 당 월 22만 투그릭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면 가정보육 서비스 제도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가정보육 서비스 운영의 배경은 첫째 경제활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아동이 방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엄마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 셋째는 가정보육사를 양성함으로써 (공공부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임신부 해고 금지 법은 잘 적용되고 있는가?

○ 해고금지 법령은 철저히 적용되고 있음.

○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원은 100%에 가깝게 이용하고 있으며, 휴직 후 복직이 보장됨. 일반 기업은 약 80%정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여기서 해고 금지 법률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다만 휴직 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음. 무급이지만 사회보험료는 납입해주고 있음. 향후 기본급의 50% 급여 지급을 검토중에 있음.

□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 0~2세 아동은 가정에서 기르는 것을 보장하고 권장하고 있음

○ 2~5세 아동은 기관보육을 기본방향으로 보고 있음. 그 이유는 보육시설은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하는 것보다 보육 교육 전문가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더 좋다고 보고 있음.

□ 결혼지원

○ 2006~2009년 까지 결혼하면 50만 투그릭을 지급하였는데, 부정 결혼사

례가 많아져서 제도 폐지함

□ 향후 과제

- 이민정책에 관해서 몽골 정부는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민에 긍정적이지는 않음
- 출상을 증가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주목하고 있음. '20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재정 수입의 20%를 보육과 교육에 투자할 계획임

□ 몽골 정부 방문 2

- 일시: 2015. 12. 3 (오후 2시~4시)
- 장소: 몽골 정부 청사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접견실
- 참석: 박종서 부연구위원, 노진호(중앙일보 기자), Sodnomzundui ERDENE(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장관), Tsoodol BOLORMAA(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국제협력국장), Bazarragchaa. L (Worldwide 여행사 전문 통역자)



사진: Sodnomzundui ERDENE(몽골 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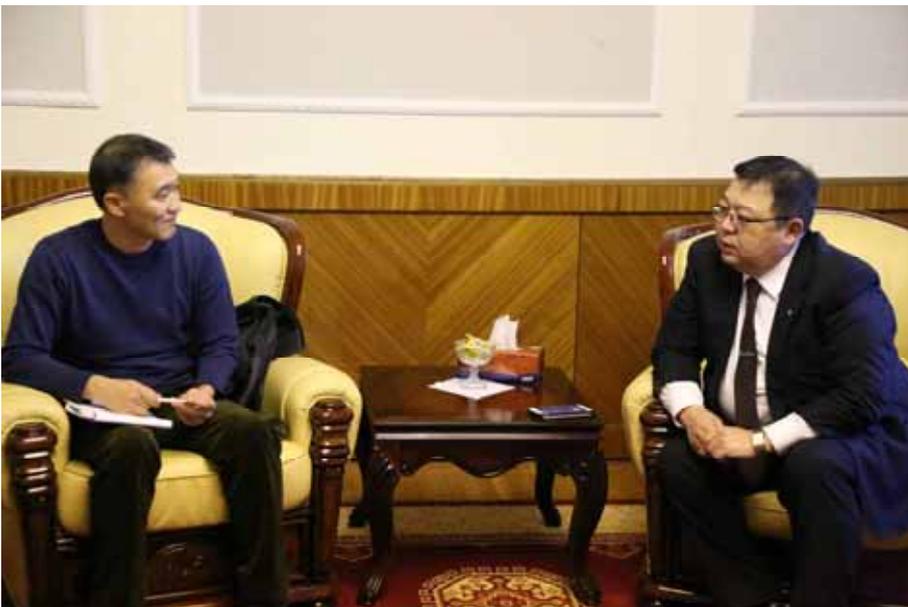


사진: Sodnomzundui ERDENE(몽골정부 인구개발 및 사회보장부 장관) 접견

## □ 몽골 인구정책 배경

- 사회주의 초기에 미혼자 또는 무자녀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고, 이것은 60-70년까지 이어졌음
- 이런 정책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80년대부터 폐지되었음
- 지금은 출산시 병원관계자와 의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성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89년부터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허용한 것임.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에 따른 것.
- 96년에 몽골의 인구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그 전에도 인구증가 정책에 관심은 있었지만, 90-96년까지는 주로 외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기간으로 볼 수 있음. 그 이후 96년 인구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96년부터 남녀 평등, 인권문제 등 UN의 권고 지침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총선 후 인구개발 사회보장부 신설되었고, 현재 장관으로써 내가 인구개발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노력 중
- 현재 몽골 인구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인력을 개발하며,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인구정책은 사회, 경제 선상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국제기구 차원의 권고 지침과 몽골 민족의 방향을 일치시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새로운 정책이 국회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인데, 기회의 창(window of probability)이라는 정책인데, 인구정책의 기초로써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이는 결국 교육, 보건, 인권 등의 강화로 인한 기회 보장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됨-박종서)
- 전 인구의 65%는 15-55세 인구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가능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10년 간은 이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에 인구 구성이 변화가 예상됨. 60세 이상 세대가 현재는 6%수준인데, 2040년에는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법적으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에 은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자녀는 가구의 여성은 본인이 원하면 55세에 은퇴할 수 있음
- 장애인,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정책은 한국과도 교류하고 있음. 사회보험은 정부간 협을 체결하여 상호 호혜원칙을 지키고 있음
- 자본주의 전환이후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었고,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몽골 국민이 한국으로 노동이주가 증가하였음
- 노동이주는 몽골 정부입장에서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노동이주

로 인한 몽골가족의 이산 등에 따라 가족 갈등이 확대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현정부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지원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가족법, 가정폭력법 개정 노력중이며, 사회복지법이 시행중이며, 사회복지법 이외에도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임.
  - 예를 들어, 아동보호법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법 신설을 준비 중에 있음. 여성과 아동의 인권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인구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성과 아동에 관한 가족환경이,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환경이 인구에 중요한 초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임.
    - 즉, 인구가 자원이라는 인식 확산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초점을 두는 것이고, 몽골 국가의 자원은 몽골인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려 노력하는 것임. 몽골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
  - 몽골 속담에 ‘사람이 늘어나면 음식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음.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집중하는 것임. 여기서 정부는 아동의 교육, 보육환경, 보건의료인프라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에 집중하고있음.
  - 아이가 삶의 행복이고 삶이 의미있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일부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함.
- 몽골 정부가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 현정부가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동수당,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보육시설, 취업모 지원임
  - 우리가 보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인재 개발에 취약하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몽골은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임.
  - 몽골은 전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음. 이런 전통을 살려 인재개발, 국민 개발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함.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대통령의 인구정책 관련 철학
- 현 대통령은 아동의 개발, 여성과 가족 관련 법 개정에 관심이 크며, 법 개정을 직접 제안 한 것임.

- “다함께”라는 법 개정을 노력 중인데, 여기는 모성건강, 아동 건강이 핵심적 내용에 해당함
- 대통령 본인이 다자녀 가정의 막내로 성장하였음. 현 대통령의 정책 기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인 것임

□ 다자녀 가족 사례 2 개요

- 일시: 2015. 12. 4 (오전 10시~12시)
- 장소: 다자녀 출산 가구 방문
- 참석: 박종서 부연구위원, 노진호(중앙일보 기자), 다자녀 출산 가족7명, Bazarragchaa. L (Worldwide 여행사 전문 통역자)



사진: 다자녀 가족 사례 2(직접 가정 방문)

□ 가족 배경

- 현재 부인은 40세, 남편은 45세
- 1995년 결혼하여 지금까지 5명의 자녀 출산
- 첫째아 현재 20세(딸), 둘째아 19세(딸), 셋째아 17세(딸), 넷째아 15세(아들), 다섯째 14세(딸)
- 첫째아와 둘째아는 현재 대학생, 셋째아는 고등학생, 넷째와 다섯째는 중학생
-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중임. 아버지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4년간 일한 경험이 있음

□ 문화적 배경

- 결혼 당시는 3-4명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었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농촌 지방에서 게르(몽골 전통 가옥)에서 생활. 당시는 어린 자녀를 게르 안에

끈으로 묶어 놓고 일을 하였음. 묶어 놓지 않으면 아이가 다칠 수 있고, 당시 농촌지역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길렀음

-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울란바트라로 이사하였음
- 넷째아(15세, 아들)에게 결혼하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은지 질문했을 때, 3-4명이라고 답함.

□ 특징

- 이 가족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았음
-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관찰됨

[참고] 몽골 인구정책 관련 법률 내용 요약

1.몽골 헌법 관련(92년 헌법)

헌법명칭	몽골의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관련 조문 및 제목	제6조 : 몽골인은 아래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관련 조문 번호 및 내용	<p>6.5/ өндөр наслах,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 алдах, хүүхэд төрүүлэх, асрах болон хуульд заасан бусад тохиолдолд эд, мөнгөний тусламж авах эрхтэй;</p> <p>6조5항/ 장수 하는 것, 노동 능력 파손, 출산, 아이 보육 및 법에 의한 기타 경우에 물품, 돈 지원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6.11/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эм соёлын амьдрал, гэр бүлийн харилцаанд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тэгш эрхтэй. Гэрлэлт нь хуулиар тогтоосон насанд хүрсэн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хоёрын тэгш эрх, сайндурын харилцаанд Үндэслэнэ. Гэр бүл, эх нялхас, хүүхдийн ашиг сонирхлыг төр хамгаална;</p> <p>6조11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가족 관계에 남자 여자 동등 권리를 가진다. 혼인은 법에 의한 연세를 만족한 남자, 여자 둘의 동등 권리, 자발적 관계 기반한다. 가족, 아동, 어린이의 관신사를 정부가 보호한다.</p>

2.노동법 관련(관련조항 99년 5월 신설)

헌법명칭	노동법: ХӨДӨЛМӨ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관련 조문 및 제목	제100조 : 임신 여자, 3살 이하 아이 엄마를 직장 해고 금지
관련 조문 번호 및 내용	100.1.Ажил олгогч нь жирэмсэн эмэгтэй, гурав хҮртэлх насны хҮҮхэдтэй эхийг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а татан буугдсан болон энэ хуулийн 40.1.4, 40.1.5-д зааснаас бусад тохиолдолд ажлаас халахыг хориглоно. 제100조1항: 고용자는 임신 여자, 3살 이하 아이 엄마를 기업 해산 및 이 법 제40조 1.4항, 제 40조 1.5항에 의해 제공된 경우 이외에 직장 해고 금지 된다.
관련 조문 및 제목	제 100조: 임신 및 출산 휴가
관련 조문 번호 및 내용	104.1.Эхэд жирэмсний болон амаржсаны 120 хоногийн амралт олгоно. 제104조 1항: 엄마에게 임신 및 출산의120일 휴가를 준다. (이 기간은 유급 휴가임)
관련 조문 및 제목	제106조: 육아 휴직
관련 조문 번호 및 내용	106.1.Ажил олгогч нь амаржсаны болон ээлжийн амралтаа эдэлсэн, гурав хҮртэлх насны хҮҮхэдтэй эх өөрөө хҮсвэл тҮҮнд хҮҮхэд асрах чөлөө олгоно. 제106조1항: 고용자는 출산휴가 및 연간휴가를 가진, 3살 이하 아이 엄마 본인이 신청시 그에게 육아 휴직을 준다. (이 기간은 무급 휴가임, 회사에서 사회보험 부분만 부담, 직종에 따라 급여 10~13%) 106.2.ХҮҮхэд асрах чөлөө дууссан, эсхҮл дуусаагүй боловч эх өөрөө хҮсвэл ажил олгогч нь тҮҮнийг ажил, албан тушаалд нь ҮргэлжлҮҮлэн ажиллуулах Үүрэгтэй бөгөөд хэрэв орон тоо нь хасагдсан, ажилтны тоог цөөрҮҮлсэн бол тҮҮнд өөр ажил олж өгнө. 제106조 2항: 육아 휴직이 끝난, 아니면 끝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복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를 다시 전 일자리에 채용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전 일자리를 없었거나, 직원수를 줄었을 경우 그에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회복지법 관련(관련조항 2012. 1월 신설)

헌법명칭	사회복지법: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ТУХАЙ Х УУЛЬ
관련 조문 및 제목	제100조 : 사회 복지 수당
관련 조문 번호 및 내용	<p>13.5.9.“Эхийн алдар” нэгдүгээр зэргийн одон, эсхүл “Эхийн алдар” хоёрдугаар зэргийн одон той эх мөнгөн тусламж давхардуулахгүйгээр.</p> <p>13.5.9.5’‘유명 엄마’ 표창 1호, 아니면 ‘유명 엄마’ 표창 2호를 가진 엄마에게 중복 되지 않게; (유명엄마 표창 2호(아이 4명 이상 낳은 엄마)는 1년에 MNT 100,000, 유명엄마 표창 2호(아이 6명 이상 낳은 엄마)는 1년에 MNT200,000)</p> <p>13.7.Жирэмсэн болон нярай, хөхүүл хүүхэдтэй эхийн тэтгэмжийг эхэд жирэмсний 5 сартайгаас эхлэн 12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сар бүр олгоно</p> <p>13.7.임신 및 아동, 엄마 젖을 먹는 아이 가진 엄마의 수당을 임신후 태아 5개월 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당 MNT40,000)</p>